책읽기의 행복 느끼게 하는 산악문학의 고전

에드워드 윔퍼 지음 「알프스 등반기」

얼마전 나는 대형서점의 등산코너에 갔다. 도봉산 정상에도 채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는 내가 새삼스레 등산서적을 찾은 것은 아무래도 출근길에 매일 보는 북악산 때문일 게다. 경복궁을 들어서면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북악산은 볼 때마다 낯설은 모습을 하고 있어 나는 아침마다의 산과의 대면에 한창 재미를 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볼 것만 아니라 들어가봐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는 고인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과, 지난주에 읽었던 김현의 「행복한 책읽기」에 나오는 등산이야기에 대한 부러움도 일조했을 게다. 어쩔 수 없는 책상물림인 나는 서점부터 찾았고, 몇시간을 훑어본 끝에 고른 책이, 1000미터도 채 안되는 산을 오르려는 사람에겐 좀 과분한 「알프스 등반기」(평화출판사)였다.

마허톤을 최초로 등반한 에드워드 윔퍼가 쓴 체험기인 이 책을 고른 까닭은 '산악문학의 고전' '알프스 등반의 역사요, 초기 알프스를 개척한 정신이며, 등산철학'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고전부터 읽는 게 순서겠다 싶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20, 30페이지정도 읽어가던 나는 실망을 했다. '알프스 등반기'하면 깎아지른 바위를 오르고 산소마스크를 낀 채 눈보라를 헤치는 걸 상상했는데(19세기 후반의 체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연상에 집착하고 있었다), 비록 초반부이긴 하지만, 윔퍼는 그렇게 높아보이지도 않는 그렇고 그런 산과 구름을 넘어 이 마을 저 마을로 왔다갔다만 하고 있었다. 책 곳곳에 실린 조그마한 삽화들은 오래간만에 삽화가 실린 책을 봐서 그런지 좀 생소했는데, 그중 한 삽화의 밑에는 이런 설명이 실려 있었다. '어느 쪽이 짐승인가.' 또 후주로 처리된 주는 안보자니 찝찝하고 보자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거슬렸던 것은 '영국사람으로서는 듣기 거북한 욕을 퍼붓고' '5프랑짜리를 얼굴에 들이대자 사람이 달라지고' '땀냄새가 코를 찔러 차라리 비바람치는 바깥이 나았다'고 알프스 지방 사람들을 묘사한 대목이었다. 이것은 아마 그 시대의 영국 국민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만일 게다. 그 날은 책을 덮었다.

하지만 다음날 그런 느낌들이 나의 잣대와 편견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성급하게 판단하고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차분하게 읽어갔다. 그러자 비로소 「알프스 등반기」 속의 진짜 세계가 살아왔다.

윔퍼는 담담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수천 피트 산에서 보는 일몰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도, 깎아지른 암벽의 위험스러움을 묘사할 때도 별로 흥분하는 법이 없었다. 등반가다운 신중함과 삽화가다운 꼼꼼한 묘사력으로 차분하게 산과 그들의 등반여정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산을 달순히 '아름답다' '위험하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르고자 하는 마허톤을 바로 눈앞에 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윔퍼와 함께 바위를 오르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크레바스를 피해가고, 날씨가 나빠 더이상 오르지 못할 때는 아쉬운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를까를 궁리하게 된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의 산인 마허톤을 제일 처음 등반하겠다는 오만하고 고집센 안내인 카롤, 형의 아이들까지 먹여살려야 하는 삶에 허덕이는 곱사등이 짐꾼 메이네, 용감하고 신중한 안내인 크로… 등 알프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윔퍼는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마허톤을 등정하고 내려오다 네 명의 동료를 잃었다. 눈 덮인 산을 내려오다 미끌어졌는데, 밧줄이 끊어져 수천 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며칠 후, 하얀 눈 위에 나란히 떨어진 허드슨, 크로, 하도우의 시체는 찾았지만 더글러스 경의 시체는 결국 찾지 못했다. 아마 지금도 알프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다. 책 뒤에는 그등반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조난사건에 대한 훗날의 비판 등이 실려 있어 '등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윔퍼의 「알프스 등반기」의 미덕은 산과, 산을 오르는 사람,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윔퍼가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마허톤에 올랐을 때도, 어렸을 때 읽었던 「에베레스트에 건 꿈」이란 책에서 느껴지던 무섭고 거대한 산을 오른 치열한 정복감보다 탁 트인 시야가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혼자 수천피트 높이에 올라 야영을 하면서 밤하늘을 보는 윈터를 그린 삽화가 떠오른다. 원초적인 고요, 원초적인 어두움 속의 별빛, 수만년을 그렇게 서 있었을 산의 숨결, 그 곳에 홀로 앉아 별을 보며 윈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알프스 등반기」를 읽은 그주 일요일에 북한산에 갔다. 도선사까지 아스팔트 길을 홀로 올라갔는데 계속 눈덮인 것처럼 느껴져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도선사를 오르는 차들이 옆으로 수시로 지나가는 그곳에는 원초적인 고요도 어둠도 숨결도 없었다. 적어도 도선사까지는 산이 없었다.

서선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번지 79호 13/3

「황홀한 실종」

어쩌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글을 써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그네들의 특별한 경험들이 가슴 속에 쌓여 있으며, 자신들의 주장 또한 각기 다를테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나가 또한 글쟁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소재만으로 안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평소에도 연신 머릿속의 글짓기가 떠나지 않으면서도 직접 해볼 엄두를 한번도 못내 본 것은 머릿속의 이야기가 입밖으로는 제대로 나와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인 줄 알았다가 어떤 글의 귀퉁이에서 발견했을 때의 그 즐거운 놀라움이라니.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온 이청준의 단편 모음집인 「황홀한 실종」(나남)이 놀라움을 안겨준 바로 그 책인데, 세련된 문장 구사력을 갖고 있는 작가가 어떻게 그런 이의 타는 속마음까지를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지에 새삼 놀라울 뿐이다.

「황홀한 실종」은 평범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 열세 가지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묘한 여운을 남기며 끝나는 것 또한 이 소설의 특징들이다. 소재의 예사롭지 않음뿐 아니라 이야기들의 전재솜씨, 써내려가는 유연성 등에서 작가의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이 한껏 드러나는데,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이어지는 말들의 적절한 아귀맞음에는 놀랄 것이다. 적절한 이분법으로 나누어 말하자면, 형식면에서는 작가의 세련미요, 내용면에서는 치열한 작가정신의 내포로 돌려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작가가 엮어내는 이야기는 소재의 궁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기품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소재의 궁상스러움이란 그 빈약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소재가 어떤 특출난 무엇이 아닌 그저 일상사 속에서 쉽게 눈에 띄는 것들이며, 사람들의 일임을 말하는 것이다.

작가 이청준의 필력이야말로 막연하게나마 글쓰고 싶어하는 이들의 의지를 죽이기에 알맞은, 그만큼 대단하고 유려하다. 남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우습게 알거나 즐겨하지 않는 이들이 한번쯤 접해보아야 할 가치를 이청준의 작품들은 지니고 있다. 어느 평자가 이들을 일컬어 "자기완성을 위한 탐구"로 논한 것을 빌리지 않더라도 「황홀한 실종」에 수록된 열세편의 작품들은 치열한 작가정신의 흔적으로 읽는 이의 정신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힘을 가졌다.

권미정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304-39

「바로 쓰는 우리말…」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 조상들은 국토, 국민, 국어의 국가 3요소의 중요함을 깊이 인지하여 갖가지 고난을 슬기 하나로 헤쳐나와 중국이나 일본의 모방이 아닌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한문을 빌어 문자를 썼지만 중국과는 엄연히 다르게 썼으니 이 점만 보아도 우리 겨레의 긍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일상용어도 모두가 뜻이 엄연히 있으며 부득이 외래어를 써야 할 경우는 상당 기간을 두고 생각하고 검토한 후 쓰도록 하였는데 이런 정신을 망각하고 요즈음은 외래문물을 무조건 선호하는 일이 있어 고유 언어에 찬물을 끼얹는 경향이 있어 뜻 있는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주체성 측면에서도 오래도록 간직하고 써온 아름답고 바른 우리말을 써야 할 현실에 부딪친 이때 깨우침과 가르침을 준 책이 한 권 나왔다. 「바로 쓰는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은 양서라 하기에도 넘치는 온 겨레들의 필독서라 여겨진다.

'방황하는 현대어 무엇이 잘못인가' '이런 말들은 바르게 가려 씁시다' '맞춤법을 입힙시다' '표준어와 사투리' '이런 외래어, 계속 써야 하나'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등 7부로 나누어 실례를 하나하나 들면서 잘잘못을 가려 놓았는데 실생활에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게 한다. 생활을 하다보면 고학력자와 전문가들의 경우도 사용하는 말이 화자의 인격이 의심갈 정도로 거칠

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특히 권하고 싶다.

옛날 조상들은 말이 조리없고 떳떳지 못하며 듣기 거북한 거친말과 상대방이 알아 듣지 못할 말, 그리고 계속성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바탕이 모자라고 흔들리는 인격자로 여겼다.

그리고 의식주에 앞서 말을 상당히 중요시하여 흩어짐이 없도록 항시 조심하였던 바 이 점이 우리말을 지켜온 기틀이 아닌가 한다.

왜정 36년의 피해 중에 우리말 수난도 상당히 심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이윤재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 안되는데 이는 국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순수한 자기네 말을 지키며 사용하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가를 볼 때 우리말의 위치가 어떤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밝혔듯이 우리말의 현 위치를 올바로 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바로쓰고 곱게 다듬으며 깨끗하고 떳떳이 쓰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다. 또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우리말을 외국어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가정 필독서로 비치하여 국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라상억

충북 청주시 모충동 87-2

「열린 사회학의 과제」

학문에서 찾아야 할 실천의 힘은 올바르게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저자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다. 외국이론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비판받아 온 우리학계에서 한국의 현실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현실이 처한 문제상황을 풀어보려 했던 지식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음은 여간 행복한 일이 아니다. 비록 그는 떠나버렸지만, 그가 본 문제의식은 그가 내뿜는 생동감있는 숨소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내던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의 생각을 검토, 비판하여 좀더 살아숨쉴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최재현교수가 「열린 사회학의 과제」(창작과비평사)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탐구의 영역은 정말 광범위하다. 인간 불평등기원에 관한 심층깊은 사색과 마르크스·베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학적 탐구, 즉 공업노동자의 사회의식, 경제성장과 문화의 관련성 등 폭넓은 주제변동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주제변동의 이면에는 학문이 특질로 삼고 있는 보편성의 추구와 이러한 보편성에 대한 갈망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특수한 사회현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저자의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현실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은 서구의 다양한 이론들이 그들의 특수상황을 일반화함으로써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되돌려 표현하자면, 서구이론의 주된 특성은 이론자체의 보편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이론이든 그 이론이 현실의 추상성이라는 인식들을 그대로 담보하고 있음도 분명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자가 서구이론에 배운 것은 다름아닌 이러한 인식들이다.

많은 이론틀 중 유독 저자의 글 내부에서 발견되는 이론틀은 우리에게 낯선 로베르트 엘리아스의 결합체 사회학이다. 서구에서 매너와 에티켓과 같은 문명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엘리아스의 이론은 서구사회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의 집합'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론의 전형은 예외없이 한국 전통사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고려사회와 조선사회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엘리아스의 미시적 분석들은 그 나름의 효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선 살 수 없다. 다양한 사회생활의 탐구,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성찰, 이 모두는 바로 우리가 탐구할 주제일 것이다.

함성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우성APT 101동 1206호

시리즈 광고③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컴피아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